



# 한·EU FTA 제3차 협상 결과

농림부

□ 한·EU FTA 제3차 협상이 지난 9. 17(월)~ 21(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음.

-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정문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품목별 양허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음.

□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수정양허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강조했음.

- EU측은 우리측 수정안이 아직 한·미 FTA 결과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주류, 낙농품, 초콜릿 등에 관심을 표명
- 우리측은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민감성 반영을 주장하고, EU측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 제4차 협상(10. 15~19, 서울)부터는 관심 품목별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

- 우리측은 EU측이 우리 민감품목의 예외적 취급을 인정하는 것이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

□ 위생·검역분야는 양측 입장을 병기한 통합 협정문을 작성, 조문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

- 동물복지, 투명성 등에는 어느 정도 입장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역화 인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 동물복지 : 축산물의 원료가 되는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에 대해 가혹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양측이 협력해 나가는 것
  - 투명성 : 위생 및 검역 규정의 내용을 상


호 통보하고 필요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

- 지역화 인정절차 : 동·식물의 질병·병해충 발생상황(예, 무발생, 저발생 등)을 질병·병해충의 종류와 특성, 위생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판단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 원산지 기준과 관련,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기른 농산물만 특혜관세를 인정한다는 입장에 양측 의견이 접근

• 가공농산물은 품목별로 차별화된 논의가 필요해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함.

□ 지리적 표시와 관련 EU측은 주로 위스키,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

• EU측이 일반 농식품까지 지리적표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News Scrap

### “조류인플루엔자 사람 간 전염 확인 안 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사람과 사람 간 전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총회 참석차 방한한 서태평양지역 사무국 AI 전문가 가사이 다케시 박사의 말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가족 7명이 AI에 걸린 것이 ‘인간 대 인간 감염’이라는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대해 가사이 박사는 ‘그렇게 불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WHO는 이들 외에 태국·베트남의 사람 간 전파 의심 사례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였다. 그러나 AI가 사람 간에 옮겨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경계를 풀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

지금까지 전 세계 12개국에서 328명이 AI에 걸

렸고 이중 200여 명이 숨졌다. 또 AI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독감(인플루엔자) 시즌이 곧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전문가인 그에게 효과적인 개인 차원의 인플루엔자 대처법을 물어봤다.

“AI의 경우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어 있거나 평소와 다른 기이한 행동을 하는 닭·오리 등의 조류를 보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에 바로 알리는 것이 현명해요.”

일본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했을 때 거의 공황 상태를 보였던 소비자가 AI에 대해선 차분하게 대처했던 속사정이 궁금해졌다.

“식품안전위원회와 지자체가 나서서 AI의 발생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가열 조리해 섭취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 셈이죠.”

- 출처 : 중앙일보 일부 발췌